

뇌하수체 거대선종과 동반된 저나트륨혈증의 임상 양상 및 발생기전에 대한 고찰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신장내과

이주학 · 노유석 · 김은영 · 김영훈 · 한상웅 · 김호중

배 경 : 저나트륨혈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재까지 뇌하수체 거대선종과 동반되어 발생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자료 조사결과 9예가 보고되어 있고, 국내에서도 2004년에 1예가 보고될 정도로 드물다고 할 수 있다. 저자들은 1예를 경험하여 임상양상 고찰을 통해 그의 발병기전에 대해서 추론해보기로 하였다.

방 법 :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증례와 저자들이 경험한 증례를 포함한 총 10예 중 자료조사가 가능한 9예를 대상으로 대상군의 특징, 뇌하수체 선종의 종류, 뇌하수체 기능저하 여부, 진단방법, 치료방법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.

본원 증례 : 72세 남자로 10년 전에 고혈압 과거력 있고, 내원 7일 전부터 전신무력감, 식욕감퇴, 내원 당일 발생한 의식저하로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고, 시행한 생화학 검사에서 Na/K 102/3.1 mEq/L Ca/P 8.2/3.0 mEq/L 내분비검사서 ACTH/cortisol 26.3 pg/mL/7.2 µg/dL ADH 0.75 pg/mL FSH/LH 11.55/8.66 mIU/mL prolactin/somatomedin C 14.52 ng/dL/132 ng/mL Renin/Aldo 4.5 ng/mL/hr/1.4 ng/dL TSH/freeT4 0.58 µIU/mL/1.72 ng/dL이었고, 공복 혈장 포도당은 93 mg/dL, 혈청 오스몰/소변 오스몰 216/480 mOsm/kg였다.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하수체 거대선종 (1.9×1.9×1.3 cm)이 발견되었다. 시야 검사에서는 양관자쪽 반맹이 확인되었다. 환자는 수술 예정이다.

결 과 : 9예 중에서 남자가 8명, 여자가 1명, 평균연령은 약 68세였고, 동반된 질환으로 고혈압은 1예에서 확인되었다. 9예 모두 1 cm 이상의 거대선종이었고, 비기능성 종양이었다. 3예에서 범발성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확인하였고, 2차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 동반되어 유발된 저나트륨혈증이었다. 나머지 6예에서는 저자들이 경험한 예와 같이 뇌하수체기능, 갑상선기능, 부신피질기능은 정상이었다. 대부분의 예에서 의식저하 및 간질증상에 대해 검사로 4예에서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진단하였다. 치료방법으로는 총 9예 중 7예에서 수술적인 제거를 시행하여 모두 저나트륨혈증은 교정되었다.

결 론 : 수술적인 제거로 뇌하수체 거대선종을 제거한 후에 저나트륨혈증이 교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거대선종이 뇌하수체 후엽이나, 뇌하수체 줄기를 눌러서 발생한 부적절한 ADH의 분비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. 매우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, 65세 이상의 고령 및 남자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진단은 뇌에 대한 방사선학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저자들은 생각하였다.